


| | | | | |
|---|--|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금융위원회 | 보 도 자 료 | | | • 미래창조 금융 • 따뜻한 금융 • 튼튼한 금융 |
| | 배포 시부터 보도 가능 | | | |
| 작성부서 |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, 법무부 상사법무과 | | | |
| 책 임 자 | 이형주 과장(02-2156-9870) 홍승욱 과장(02-2110-3167) | 담 당 자 | 박재훈 사무관(02-2156-9871) 채희만 검사(02-2110-3630) | |
| 배 포 일 | 2015.10.20(화) | 배포부서 | 대변인실(2156-9543~48) | 총 2매 |

제 목 : 「전자증권법」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

1. 개 요

☐ '15.10.20.(화) 「전자증권법」 제정안이 국무회의 통과

*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

- 동 법은 주식 및 사채 등의 발행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물증권 기반의 예탁제도를 전자증권제도로 전환*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

* 주식 및 사채 등을 실물 발행 없이 그 권리를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하여 권리관계가 설정·변경·소멸할 수 있도록 함

2. 주요 내용 (※ 상세한 내용은 '15.5.21일자 보도자료 참고)

☐ (적용대상) 유가증권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로서 주식, 국채, 사채, 수익권 등을 대상으로 함

- 실물 유통 비중이 낮은 상장주식 등은 전자등록을 의무화하고, 비상장 주식·사채 등은 발행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

☐ (운영체계)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으로 구성

- 전자등록기관은 주식등의 전자등록 내역 및 계좌관리기관을 통한 거래내역을 통합 관리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수행
- 계좌관리기관은 투자자 주식등을 위탁받은 증권회사, 신탁회사 등이 담당하며 투자자별 고객계좌를 관리

☐ (투자자 보호장치)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(초과등록)*가 발생할 경우, 거래안정성을 위하여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

* 전산상 착오에 의해, 실제 발행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시스템상 존재하는 경우 (예: 1개 증권 매매시 매도자 계좌에 -1, 매수자 계좌에 +1 처리를 해야하나 실수로 매도자 계좌의 -1 처리를 누락하는 경우)

- 오류 회복을 위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,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,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

☐ (시행시기) 공포후 4년이내의 기간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함

3. 향후계획

☐ 동 법률 제정안을 10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



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http://www.fsc.go.kr>

넓게 들겠습니다
바르게 알리겠습니다